

아로요 필리핀 대통령 내외 주최 국민만찬 감사

존경하는 글로리아 마카파갈 아로요 대통령 각하 내외분,

그리고 내외 귀빈 여러분,

나와 우리 일행을 따뜻하게 맞아 주신 각하와 필리핀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밝고 친절하며 예의를 중시하는 필리핀 국민들을 보면서 깊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필리핀을 '동방의 진주' 라고 부르는 이유가 단지 아름다운 자연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필리핀은 각하의 취임 이후 높은 경제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각하께서 국가의 개발방향을 분명히 하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을 보여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각하께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계신 5대 경제개혁 성과가 가시화되면 필리핀은 한층 더 비약적인 발전을 이룩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각하의 탁월한 지도력과 필리핀 국민의 역량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대통령 각하,

필리핀과 한국은 수교 이후 50여 년간 각별한 유대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한국

전쟁 때에는 7천여 명의 필리핀 용사들이 우리의 자유와 평화를 위해 함께 싸웠습니다. 국민의 힘으로 독재정권을 무너뜨린 민주주의 역사 또한 두 나라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도 한국은 필리핀의 일곱번째 교역국이며, 필리핀은 한국의 다섯번째 투자대상국입니다. 올 들어서도 우리 기업의 투자가 200% 이상 늘어났습니다.

나는 재작년 각하께서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합의한 '21세기 미래지향적 포괄적 협력관계'를 더욱 내실 있게 심화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각하와의 정상회담은 매우 만족스러웠습니다. 특히 이번에 서명한 사회보장협정과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약정은 양국 간 공동사업을 확대하고,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틀 전 체결한 '한·ASEAN FTA 기본협정'도 양국의 교류·협력을 더욱 증진하는 든든한 토대가 될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지난해 40만 명 가까운 한국인들이 이곳 필리핀을 찾았습니다. 필리핀은 또한 ASEAN 국가 중에서 우리 동포가 가장 많이 살고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우리 국민들에 대한 각하와 필리핀 정부의 깊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아로요 대통령 각하 내외분의 건강과 필리핀의 번영, 그리고 양국의 영원한 우정을 위해서 건배를 제의합니다. 감사합니다.